

아시아 출판물의 허브 꿈꾸는 베이징국제도서전

글·사진_장동석 기자

아시아 출판의 허브로 도약 중인 제14회 베이징국제도서전이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베이징 차이나인터내셔널센터에서 열렸다. 지난 해 차이나인터내셔널센터 1, 2층만 사용했던 것과는 달리 4층 전체와 별관을 하나를 추가해 전시면적만 2만 6,000천㎡ 규모로 열린 이번 베이징국제도서전은, 전 세계 1,200여 개 출판사가 참여하면서 서울국제도서전과 동경국제도서전을 넘어 세계 유수의 도서전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번 베이징국제도서전의 주빈국은 독일이었다. 차이나인터내셔널센터 2층에 마련된 주빈국 독일 부스와 유럽국가 부스는 독창적이고 세련된 부스 배치와 디자인으로 관람객들의 이목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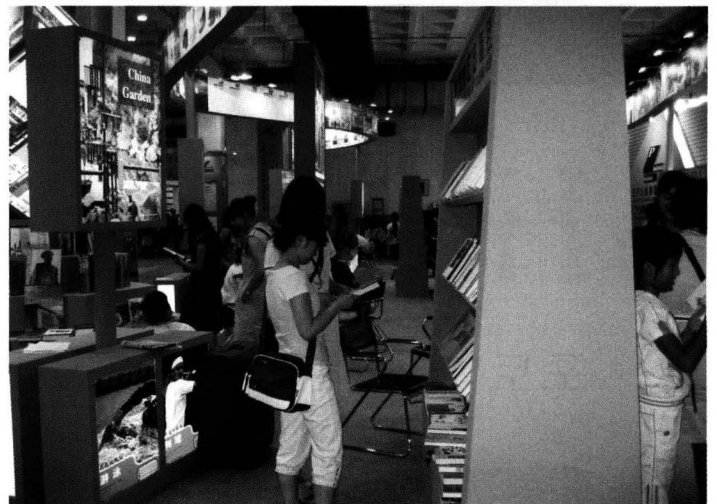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중국 출판사들이 부스를 차린 1층 등은 한산한 반면 2층 독일관과 유럽국가관은 도서전 기간 내내 관람객들로 붐볐다. 한 중국 출판사 관계자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 출판물도 많이 진보했지만 디자인 등에서 보면 한국과 유럽 등 출판사가 앞선 것은 사실”이라며 “2층 유럽 부스가 붐비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22개 출판사와 4개 저작권 에이전시가 참가한 한국 출판사들도 중국 출판시장 파악에 많은 공을 들이는 분위기였다. 또한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마련한 한국관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도 높았다. 대한출판문화협회 국제사업부 문승현 차장은 “한국 아동서적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이 높다”면서 “아동과 건축 분야 등 중국 출판시장 공략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베이징국제도서전 주빈국으로 초대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한 에이전시 관계자 역시 “13억 인구에, 연 10%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 출판시장을 유럽 국가들이 선점하기 위해 베이징국제도서전에 해마다 더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 출판사들도 더 적극적으로 중국 진출을 모색해야 할 때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베이징국제도서전 기간에 한국과 중국 출판 관계자들은 의미 있는 협약을 맺었다. 2008년 서울국제도서전 주빈국으로 중국이 참여하기로 대한출판문화협회와 중국도서진출구총공사가 합의한 것이다.

한국 출판계는 중국을 내년 서울국제도서전의 주빈국으로 초청하면서 지금까지 주빈국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던 서울국제도서전의 변화를



베이징국제도서전이 열린 차이나인터내셔널센터 전경(위)과 주빈국으로 초청된 독일관 부스(아래).

모색할 수 있게 되었고, 중국 출판시장 공략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프랑크푸르트 등 세계 유수의 도서전과 비교하면 전반적인 면에서 아직은 낙후된 수준으로 치부될 수 있지만 가능성만큼은 높다는 것이 베이징국제도서전에 대한 중론인 듯하다. 풍부한 관광자원과 결합하고 도서전의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아시아 출판물의 허브를 꿈꾸는 베이징국제도서전의 기대는 멀지 않은 장래에 이뤄질 듯 보인다. **장동석**